

흡연대학생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정미현* · 신미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0.3%, 여성의 흡연율은 3.1%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20여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반면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연령층에 속하는 20대 남성 흡연율은 59.4%, 여성은 4.9%로 전체 흡연인구에 비해하여 대학생이 속하는 20대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여대생 흡연까지 감안하면 대학생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약 100만 명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유해성에 관한 세계보건기구(2004)의 보고에 의하면 인디아의 모든 남성 결핵 사망자중 50%가 흡연이 원인이었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의 위험성과 여성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형아출산이 증가되었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흡연관련 질병치료를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접비용, 담배구입비, 흡연으로 인한 화재 시 비용, 흡연에 따른 질병, 장애, 조기사망, 결근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생산인력

손실비용을 들 수 있다(Choi, 2004).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성인으로 인식되어 특별한 사회적 제약 없이 음주와 흡연이 자유로우며, 최근에는 가중되는 취업난과 과도한 학업량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가 흡연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다(Rhim, Lee, Choi, & Kim, 2004).

흡연은 전 세계 공동의 건강문제이며, 현재의 흡연율을 낮추지 못하면 국가와 개인의 건강 및 사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캠페인, 흡연장면 규제, 공공장소 흡연규제, 금연구역 확대 실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요구, 비 흡연자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혐연권 주장 등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증폭되고 있다(Ann, 2003).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금연 성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Hyun, 1998; Jin, 2001).

Dozis, Farrow와 Miser(1995)는 금연을 유도하거나 흡연감소를 동기화시키는 요인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Woo(2002)는 성인흡연자들이 흡연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유익성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홍보 및 교

*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겸임교수(교신저자 E-mail: wh-move@hanmail.net)

** 경북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육이 필요하며, 흡연지식의 축적으로 학습된 결과가 흡연태도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Ann, 2003; Ott, Cashin, & Altekruise,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흡연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흡연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흡연대학생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흡연지식 및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및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흡연지식

흡연지식이란 담배의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유발되는 질병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WHO, 1998). 본 연구에서 흡연지식은 세계보건기구(1982)에서 제작한 흡연설문지침서를 Park과 Kang(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2) 흡연태도

흡연태도란 흡연에 대한 느낌, 자세, 의향, 몸가짐을 의미한다(Simons-Morton, Bruce, Greene, & Gottlieb, 1995). 본 연구에서 흡연태도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예방통제센터(2001)가 개발한 흡연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한 후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 4개 4년제 대학과 3개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흡연자를 임의 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상 학교의 강의실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대상자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600부로 흡연여부의 노출을 꺼려하는 여학생의 경우를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들에게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 기입토록 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는 흡연자만을 선별하여 비흡연자 174부와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총 41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흡연지식

본 연구에서 흡연지식은 세계보건기구(1982)에서 제작한 흡연설문지침서(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를 Park과 Kang(1996)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 흡연에 대한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대학생에게 맞게 어휘를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문항 평가는 명목척도 방법에 따라 정답일 경우는 1점, 오답은 0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10$ 이었다.

2) 흡연태도

흡연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질병예방통제센터(2001)가 개발한 흡연설문지(Core questions global youth tobacco survey)를 본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한 후 영문학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흡연에 대한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자문

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정한 후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도구제작 당시 총 17문항이었으나, 5문항은 본 연구의 흡연관련 특성과 흡연지식 측정도구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한 후 총 12문항을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가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7$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흡연지식 및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및 태도 정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 4) 대상자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 411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85.6%, 여학생 14.4%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21~25세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1.84±2.59세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30.1%로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종교 없음이 39.9%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부모님집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 용돈은 21~30만원이 27.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용돈은 28만 8천원이었다.

2.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1)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352	85.6
	여학생	59	14.4
연령	18~20세	156	38.0
	21~25세	221	53.7
	26~30세	34	8.3
학년	1학년	108	26.3
	2학년	124	30.1
	3학년	94	22.9
	4학년	85	20.7
전공계열	인문계열	182	44.3
	자연계열	23	5.6
	예체능계열	100	24.3
	보건·의학계열	106	25.8
종교	기독교	116	28.2
	천주교	55	13.4
	불교	46	11.2
	원불교	12	2.9
	없음	164	39.9
	기타	18	4.4
거주유형	부모님집	153	37.2
	친척집	17	4.1
	친구와 자취	53	12.9
	혼자 자취	82	20.0
	하숙집	10	2.4
	기숙사	96	23.4
한달용돈	1~10만원	72	17.5
	11~20만원	102	24.7
	21~30만원	112	27.3
	31~50만원	87	21.3
	51만원 이상	38	9.2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처음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16~20세가 56.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흡연 시작연령은 15.10±5.21세로 흡연자는 평균적으로 15세인 중학생 때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담배를 피운 총 기간은 60개월 이상이 55.5%로 나타났고, 평균 흡연기간은 64.14±35.14개월로 평균 5년 이상 흡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흡연기간은 30일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한 달간 흡연기간은 23.88±10.11일로 평균 24일 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흡연을 위한 비용은 5만원 이상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비용은 약 44658.54±19521.93원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 43.1%로 가

〈표 2〉 대상자의 흡연특성

특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흡연시작연령	11~15세	155	37.7	15.10± 5.21
	16~20세	233	56.7	
	21세 이후	23	5.6	
총 흡연기간	60개월 미만	183	44.5	64.14±35.14
	60개월 이상	228	55.5	
한달흡연기간	1 ~ 9일	74	18.0	23.88±10.11
	10~19일	18	4.4	
	20~29일	59	14.4	
	30일	260	63.2	
한달 흡연비용	1만원 이하	20	4.9	44658.54±19521.93
	1~3만원 미만	96	23.4	
	3~5만원 미만	89	21.7	
	5만원 이상	205	50.0	
흡연 시작동기	호기심	177	43.1	
	스트레스 해소	92	22.4	
	친구·선배의 권유	115	28.0	
	멋있게 보여서	15	3.6	
	체중조절	3	0.7	
	기타	9	2.2	
흡연장소	집	100	24.3	
	학교	143	34.8	
	친구집	7	1.7	
	PC방, 만화방	39	9.5	
	공원, 길거리, 유원지	31	7.5	
	카페, 모임장소	91	22.2	
가족흡연	없다	176	42.8	
	있다	235	57.2	
가족내 흡연자	아버지	161	68.5	
	어머니	8	3.4	
	조부모	15	6.4	
	남자형제	77	32.8	
	여자형제	7	3.0	
	친척	39	16.6	
친한친구 흡연	현재 피운다	250	60.8	
	피우다 끊었다	53	12.9	
	전혀 피우지 않는다	108	26.3	
음주시 흡연	예	399	97.1	
	아니오	12	2.9	

장 많았으며, 주로 흡연하는 장소는 학교가 34.8%로 가장 많았다. 가족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57.2%로 아버지가 흡연하는 경우는 68.5%, 남자형제 32.8% 순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는 현재 피운다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시 흡연여부는 흡연을 한다가 97.1%로 대부분 음주 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흡연지식 정도

대상자의 흡연지식 정도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흡연지식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17.40±2.45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3점에서 최고 20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흡연지식을 측정하는 20문항 중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의 문항은 .99±.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항목이 .45±.5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3〉 대상자의 흡연지식

	문항	평균±표준편차
1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많이 생긴다.	.97±.16
2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95±.22
3	담배는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킨다.	.97±.16
4	담배를 조금씩 피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80±.40
5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85±.36
6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99±.11
7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45±.50
8	임신 중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에 해롭다.	.98±.15
9	담배를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에 더 해롭다.	.94±.23
10	연기를 들며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	.85±.36
11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아프게 된다.	.72±.45
12	어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	.84±.37
13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89±.32
14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기 힘든 이유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93±.26
15	담배를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96±.20
16	담배를 피워도 운동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78±.41
17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	.93±.25
18	담배를 피우면 심장기능이 약해진다.	.89±.31
19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73±.44
20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성분이다.	.98±.13

4. 대상자의 흡연태도 정도

대상자의 흡연태도 정도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흡연태도 평균점수는 48점 만점에 23.69±6.19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12점에서 최고 46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흡연태도를 측정하는 12문항 중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울 것이다」가 2.77±1.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만약 친한 친구가 담배를 권하면 필 수도 있을 것이다」는 .04±1.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및 태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및 태도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정도는 연령(F=4.84, p=.008), 학년(t=2.96, p=.003), 전공 계열(F=5.93, p=.001), 종교(t=2.96,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태도 정도는 연령(F=8.15, p=.000), 학년(t=2.33, p=.020), 전공

〈표 4〉 대상자의 흡연태도

	문항	평균±표준편차
1	만약 친한 친구가 담배를 권한다면 필 수도 있을 것이다.	.04±1.02
2	앞으로 1년 안에 어느 때이든 담배를 필 수도 있을 것이다.	2.15±.99
3	지금부터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을 것이다.	1.84±.93
4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울 것이다.	2.77±1.03
5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은 친구가 더 많을 것이다.	2.36±.86
6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은 친구가 더 많을 것이다.	1.88±.80
7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모임, 행사에서 담배를 피우면 기분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93
8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이 피우지 않는 남학생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	1.80±.79
9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피우지 않는 여학생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	1.54±.77
10	담배 피우는 남성을 보면 남자답고 지적이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1.64±.75
11	담배 피우는 여성을 보면 세련되고 지적이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1.48±.71
12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2.18±.86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과 태도 정도

특 성	구 분	실 수	흡연지식			흡연태도		
			Mean±SD	t/F	p	Mean±SD	t/F	p
성 별	남학생	352	17.51±2.27	1.64	.105	23.72±6.28	.23	.812
	여학생	59	16.78±3.28			23.53±5.66		
연 령	18~20세	156	17.74±2.20	4.84	.008	22.62±5.75	8.15	.000
	21~25세	221	17.07±2.65			24.78±6.32		
	26~30세	34	18.06±1.74			21.53±5.93		
학 년	저학년	232	17.72±2.15	2.96	.003	23.06±5.68	2.33	.020
	고학년	179	16.99±2.73			24.51±6.72		
전공계열	인문계열	182	17.30±2.50	5.93	.001	22.93±6.32	8.35	.000
	자연계열	23	17.87±2.65			22.48±5.15		
	예체능계열	100	16.74±2.80			25.72±6.10		
	보건·의학계열	106	18.10±1.66			21.62±5.59		
종 교	있다	247	17.13±2.71	2.96	.003	23.86±6.35	.45	.656
	없다	164	17.81±1.91			23.58±6.09		
거주유형	부모님집	153	17.58±2.37	2.06	.069	22.61±6.32	3.08	.010
	친척집	17	16.47±4.05			25.82±4.46		
	친구와 함께 자취	53	17.00±1.75			25.98±6.95		
	혼자 자취	82	16.96±2.55			24.27±5.81		
	하숙집	10	16.60±2.76			23.20±7.22		
	기숙사	96	17.42±2.35			23.32±5.62		
한달용돈	20만원 이하	174	17.34±2.43	.46	.645	23.91±6.27	.60	.544
	21만원 이상	237	17.45±2.6			23.53±6.13		

계열(F=8.35, p=.000), 거주유형(F=3.08, 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6. 대상자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r=.213 (p=.000)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6).

〈표 6〉 흡연지식과 태도 상관관계

구 분	흡연지식
흡연태도	r= .213(p=.000)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흡연지식 정도는 20점 만점에 17.40점이었으며, 직장 흡연남성을 대상으로 한 Kim(2005)의 15.3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 직장인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흡연의 폐해와 금연이 가져다주는 건강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Jean, Commmings,

Zielenzny와 Proctor(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이 흡연지식 문항 중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호흡기 질환 유발, 간접흡연의 유해성, 태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담배가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문항의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흡연량이 많으며, 심리적인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Bae, Ahn, & Park, 1994). 따라서 금연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흡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절 완화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흡연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지식 문항에 대해서도 교양강좌나 보건실 방문 시 개별적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태도는 48점 만점에 23.69점이었으며, 성인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Ann(2003)의 26.25점 보다 더 낮아 흡연대학생들이 성인 남성 흡연자보다 흡연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대학생들은 흡연

지식 정도는 높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흡연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습득한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신념이나 태도를 갖기도 하며, 행위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Park, 2002)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흡연동기와 관련요인 연구에 의하면 흡연의 주요 역할요인으로 흡연하는 친구 또는 동료의 권유에 의해 대부분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도 친구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났다(Simons-Morton et al., 1995). 이는 태도 문항 중 친구가 권하면 담배를 필 것이라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과 관련하여 흡연을 예방하거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세울 때 친구의 영향이나 흡연 압력에 대한 대처도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시작 평균연령은 15세이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과 Kim(2001)의 중·고등학교 1~2학년 시기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기가 흡연에 관한 보건교육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로, 청소년기의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보건교육은 전체 성인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흡연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Rhim 등(2004)과 Yoon과 Kim(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으로 흡연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흡연을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흡연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금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흡연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상물을 이용한 흡연 폐해사례 방송, 친구나 선배의 권유를 적절히 거절하는 방법 및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

대상자들의 34.8%가 주 흡연 장소로 학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교 내에서의 흡연이 별다른 제재 없이 용인되고 있으며, 실내 공기오염이나 간접흡연의 폐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 금연구역 설정과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아울러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대학생들 스스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제지할 수 있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 시 흡연을 하는 경우는 97.1%로 대부분의 흡

연자가 음주와 함께 흡연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Rhim 등(2004)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88.8%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여부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대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흡연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연령, 학년, 전공계열, 종교이었다. 즉, 대상자의 연령은 26~30세이며, 저학년이고, 전공이 보건·의학계열로써 종교가 없는 경우에 흡연지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oo(2002)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 종교에 따라 흡연지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흡연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연령, 학년, 전공계열, 거주유형이었다. 즉, 대상자의 연령은 21~25세이며, 고학년이고, 전공이 예체능계열로써 친구와 자취하는 경우에 흡연태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계열, 종교에 따라 흡연태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Hyun(199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 흡연지식과 흡연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흡연지식이 높을수록 흡연태도도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지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Choi, 1999; Kang, 2002; Kim, 2005; Park & Kang, 1996)를 지지하였으며, 즉 흡연지식을 제공하는 건강교육이 흡연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중요한 중재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흡연대학생의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는 연령, 학년, 전공계열 등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보건지식 강화와 함께 심리적인 접근을 통한 가치와 신념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하며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학교 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철저한 감시활동과 전문적인 보건요원의

개별적인 상담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흡연 폐해를 강조하는 포스터 부착과 영상물을 학생들이 다수 활용하는 공간 내에서 상시 방영하는 등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형성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대학생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지역에 재학중인 흡연대학생 411명을 임의표출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특성, 흡연 지식과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및 태도는 t-test, ANOVA를,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흡연대학생의 흡연지식 점수는 17.40±2.45점이었으며, 연령(F=4.84, p=.008), 학년(t=2.96, p=.003), 전공계열(F=5.93, p=.001), 종교(t=2.96, p=.003) 등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흡연대학생의 흡연태도 점수는 23.69±6.19점이었으며, 연령(F=8.15, p=.000), 학년(t=2.33, p=.020), 전공계열(F=8.35, p=.000), 거주유형(F=3.08, p=.010) 등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흡연지식과 태도는 r=.213(p <0.01)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1.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는 대상자들의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심리적인 접근을 통한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효과가 검증되어야 한다.
2. 효율적인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건요원의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대상자를 확대시켜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Ann, S. J. (2003). *The Study of Smoking attitude,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of Adult Male*.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Bae, J. M., Ahn, Y. O., & Park, B. J. (1994). Association of Stress Level with Smoking Amount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of Preventive Medicine*, 27(1), 1-10.

CDC. (2001). *Core questions global youth tobacco survey(GYTS)*.

Choi, H. Y. (1999).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n Smok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Choi, J. E. (2004). *An Economic Analysis of Smok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Korea.

Dozis, D. M., Farrow, J. A., & Miser, A. (1995). Smoking pattern and cessation motivation during adolescence. *Int. J. Addic*, 30(11), 1485-1498.

Hyun, H. J. (1998). A Study on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nd it's Determinant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1(2), 217-228.

Jean, C. R., Cummings, K. M., Zielenzny, M., & Proctor, C. (1993). Patterns and Predictors of smoking cessation among users of a telephone hotline. *Publ Health*

- Rep Hyattsville*, 108(6), 772-778
- Jin H. M. (2001).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 Smokers. *Korean Society of Aerobic Exercise*, 5(2), 123-132.
- Kang, C. K. (2002). *Analysis of related factors on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and drinking in Inche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S. (2005). A Study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Male Smokers. *J Korean Acad Nurs*, 35(2), 344-352.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5). Smoking Rate of Korean Adults 2005. <online> <http://www.kash.or.kr/user.o-data-0.1.htm>.
- Ott, C. H., Cashin, S. E., & Altekruise, M.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Tobacco Surve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3(5), 231-239.
- Park, Y. J. (2002).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ctivity, knowledge & attitude of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Smo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Y. K., & Kang, Y. J. (1996). Behavior, Knowledge and attitude on smoking of prim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Fam Med*, 17(9), 798-809.
- Rhim, K. H., Lee, J. H., Choi, M. K., & Kim, C. J. (2004).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es*, 30(1), 57-70.
- Simons-Morton, B. G., Bruce, G., Greene, W. H., & Gottlieb, N. H. (1995). *Introduction to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Long grove illinois : Waveland Press Inc.
- WHO. (1982).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 Report of a WHO meeting held in Helsinki, Finland 29 November to 4 December. WHO/SMO/83.4.
- WHO. (1998). *The world health report 1998: life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for all*.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WHO. (2004). *Tobacco and Poverty: A Vicious Circle report*.
- Woo, E. K. (2002). *A Study on the Knowledge level of smoking and smok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oo, I. S., & Kim, K. H. (2001). Smoking status and nicotine dependency of Taegu health college students. *J Daegu Health College*, 21, 155-171.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of College Student Smokers

Jeong, Mi Hyeon(Adjunct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Shin, Mi A(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of college student smoker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6th to 27th of April 2005, from 411 college student smokers in Jeollabuk-Do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using the SPSS WIN 11.0. **Results:** 1) The focus group showed mean 17.40 ± 2.45 in the knowledge about smoking. The knowledge about smok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eneral subject characteristics of age($F=4.84$, $p=.008$), grade($t=2.96$, $p=.003$), major($F=5.93$, $p=.001$), and religion($t=2.96$, $p=.003$). 2) The focus group showed mean 23.69 ± 6.19 in their attitude about smoking. The attitude about smok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eneral subject characteristics of age($F=8.15$, $p=.000$), grade($t=-2.33$, $p=.020$), major($F=8.35$, $p=.000$), and residence($t=3.08$, $p=.010$). 3) Th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were positively correlated($p < 0.01$). **Conclusion:** The subjects knowledge about smoking was correlated with their attitude about smoking.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various differential smoking prevention programs and extend the role of exper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smokers, Smoking, Knowledge, Attitude